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이상직 부연구위원(삶의질그룹)

11위와 102위, 지수별 순위 차이가 큰 국가

◇ 성불평등지수로 보면, 한국은 성평등 국가임

-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건강, 권한, 노동 측면에서 유엔회원국가의 성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수로 UNDP가 2010년에 발간한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주년 판에서 처음 소개한 이래 2021년도 결과(UNDP, 2022)까지 발표함

[표 1] 성불평등지수의 구성

영역	지표	측정
건강	모성사망비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학교 이상 교육 인구 비율(성별)
노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성별)

출처: 주재선(2021: 48)

- 한국은 2010년에는 138개 국가 가운데 20위를, 2021년에는 191개 국가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음
- 순위로 보면 지난 10년 간 상승-정체-하락세가 나타남
- 2014년에 23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위를, 2019년에 11위를, 2021년에 15위를 기록함

◇ 성격차지수로 보면, 한국은 성불평등 국가임

-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건강, 교육, 경제, 정치 측면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세계경제포럼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세계젠더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를 발표함

[표 2] 성격차지수의 구성

영역	지표	측정
생존과 건강	· 출생성비(여아 대 남아비) ·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 수명	· 출생시 자녀 성비 · 건강기대수명 남녀 차이
교육	· 남성 대비 여성 문해율 · 남성 대비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 · 남성 대비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 · 남성 대비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 15세 이상 인구 문자 해독율 · (6-11세 재직 학생수)/(6-11세 적령인구)*100 · (12-17세 재직 학생수)/(12-17세 적령인구)*100 · (고등교육 재직 학생수)/(고졸 직후 연령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경제	·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 · 유사 업무 기준 남녀 임금평등 · 남성 대비 여성 추정소득 비 · 남성 대비 여성 행정·관리직 비 · 남성 대비 여성 전문·기술직 비	·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 세계경제포럼의 경영자의견조사 · GDP, 경제활동인구 성비, 비농촌 임금성비, 성별 인구 등을 고려해 산출 · 성별 임금근로자 중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성비 · 성별 임금근로자 중 전문·기술직 성비
정치	·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 · 남성 대비 여성 정·차관 비율 · 남성 대비 여성의 정부 수반 재임 기간	· 국회의원 비율 성비 · 장관급 비율 성비 · 최근 50년 이내 총리 이상 직위 재직 연수 성비

출처: 주재선(2021: 52)

- 한국은 2006년에 115개 국가 중 92위를 차지했고, 2023년에 146개 국가 중 105위를 차지했음
- 순위로 보면, 지난 15년간 일관된 변화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음
 - 순위가 2006년 이래 2017년(118위)까지 완만하게 하락했고, 2018년(115위)부터 2021년(102위)까지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2023년에 하락함

◇ 수준과 격차의 관계

- 성불평등지수와 성격차지수는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
 - 성불평등지수는 ‘수준’에 주목하고, 성격차지수는 ‘격차’에 주목함
 - 성불평등지수는 ‘투입 변수’에 주목하고, 성격차지수는 ‘산출 변수’에 주목함
 - 성불평등지수는 ‘역량’에 주목하고, 성격차지수는 ‘평등’에 주목함
-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 차원은 조응하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예외 사례가 한국임
 - 두 지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수에 따른 위치 차이가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표 3])
 - 유사한 사회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보다 경제적·정치적 활동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이 한국의 특징임

[표 3] 성불평등지수(2021) 하위영역별 값(상위 20개국)

순위	국가	GII (2021)	모성 사망률 (2017)	청소년 출산율 (2021)	의회 여성 비율 (2021)	중등이상 교육인구 (2021)		노동시장 참여율 (2021)		성격차 지수 순위 (202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덴마크	0.013	4	1.9	39.7	95.1	95.2	57.7	66.7	23
2	노르웨이	0.016	2	2.3	45.0	99.1	99.3	60.3	72.0	2
3	스위스	0.018	5	2.2	39.8	96.9	97.5	61.7	72.7	21
4	스웨덴	0.023	4	3.3	47.0	91.8	92.2	61.7	68.0	5
5	네덜란드	0.025	5	2.8	39.1	89.8	92.7	62.4	71.3	28
6	핀란드	0.033	3	4.2	46.0	99.0	98.5	56.5	64.0	3
7	싱가포르	0.040	8	2.6	29.8	80.5	85.9	59.4	76.8	49
8	아이슬란드	0.043	4	5.4	47.6	99.8	99.7	61.7	70.5	1
9	룩셈부르크	0.044	5	4.3	35.0	100.0	100.0	58.5	65.5	44
10	벨기에	0.048	5	5.3	42.9	87.2	89.7	49.8	58.8	10
11	아랍에미리트	0.049	3	3.1	50.0	82.0	85.6	46.5	88.0	71
12	오스트리아	0.053	5	5.5	39.3	100.0	100.0	55.5	66.3	47
13	이탈리아	0.056	2	4.0	35.3	78.6	86.1	39.9	57.6	79
14	스페인	0.057	4	6.3	42.3	78.5	83.2	52.7	62.4	18
15	한국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105
15	포르투갈	0.067	8	7.4	40.0	59.7	61.9	54.0	62.2	32
17	캐나다	0.069	10	7.0	34.4	100.0	100.0	60.8	69.7	30
18	솔로몬아	0.071	7	4.5	21.5	97.6	98.7	53.8	62.2	29
19	호주	0.073	6	8.1	37.9	94.6	94.4	61.1	70.5	26
19	독일	0.073	7	7.5	34.8	96.1	96.5	56.8	66.0	6
20개 국가 평균		0.047	5.4	4.5	38.3	90.5	92.5	56.2	68.2	

자료: UNDP(2022), World Economic Forum(2023).

서로 다른 위치를 이해하는 한 관점, 젠더 규범

◇ 젠더규범지수로 볼 때 한국은 젠더 편견이 심한 국가임

- ‘젠더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는 UNDP가 정치, 교육, 경제, 신체 측면에서 젠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UNDP가 2019년 『인간개발보고서』로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한 이후 2023년에 두 번째 결과를 발표함(UNDP, 2023a)
- 성 격차를 결과로 평가하는 성취도 기반의 성평등 측정 방식과 달리 젠더규범지수는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인식이나 편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보고서는 교육에서의 젠더 격차 완화가 소득에서의 젠더 격차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젠더 소득 격차가 젠더규범지수 값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함(UNDP, 2023a: 9)
- 젠더 편견은 여성의 높은 인적 역량과 낮은 사회경제적 성취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

[표 4] 젠더규범지수의 구성

영역	지표	측정	편견 정의
정치	민주주의와 권리	아래의 항목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10점 척도에서 1(“필수적 요소가 아니다”)-7
	정치지도자 자격	다음의 문장들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정치지도자가 된다.”	4점 척도에서 “매우 동의”와 “동의”
교육	대학 교육의 필요성	다음의 문장들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가? “대학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4점 척도에서 “매우 동의”와 “동의”
	일자리 권리	다음의 문장들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가? “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5점 척도에서 “매우 동의”와 “동의”
경제	기업경영자 자격	다음의 문장들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을 더 잘 운영한다.”	4점 척도에서 “매우 동의”와 “동의”
	신체	폭력	“아내를 때린 남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재산권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0점 척도에서 1(“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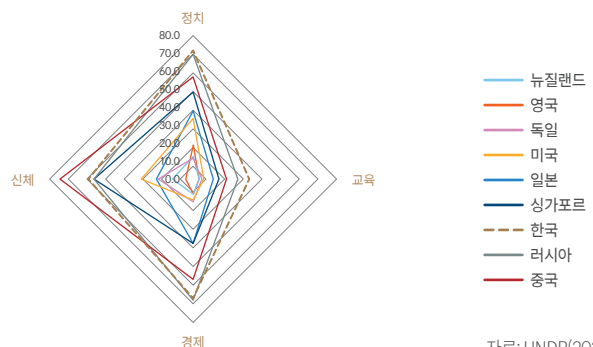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3),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7차 조사 조사표(2022)

- 2023년에 75개 국가(세계인구의 80% 이상)를 조사했는데, “4개 항목 모두에서 반여성적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율”로 확인한 한국의 순위는 38위였음(10.1%)
-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 상위권 국가는 70%대였고 미국은 49.8%였으며 일본은 41.2%였음

◇ 정치·경제 측면에서 편견이 심함

- 영역별로 편견이 있는 이들의 비중을 확인하면, 한국은 특히 정치(72.9%)와 경제 영역(65.5%)에서 편견이 심함
-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에 머무르는 주된 요인이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의 성별 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
- 명미권, 유럽권의 주요 국가는 물론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편견 수준이 높음
- 영역별 분포로 보면 한국은 러시아와 가장 유사함

[그림 1] 반여성적 편견이 있는 이들의 영역별 비율(9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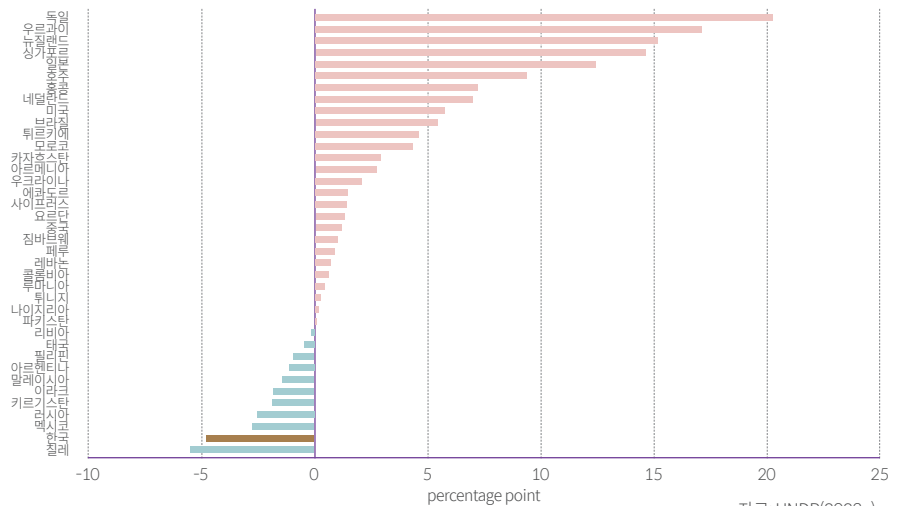


자료: UNDP(2023a).

◇ 한국은 지난 5-10년간 젠더 규범이 후퇴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

- 최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남
- 한국은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이 낮아진 정도가 두 번째로 큰 국가임

[그림 2] 국가별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중 변화(2010-2014/2017-2022)



자료: UNDP(2023a).

◇ 시사점

- 한국의 젠더 평등 인식 약화는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 위기’나 ‘돌봄 위기’의 원인이자 해법을 시사함
 - 최근의 인식 퇴보에 물론 주목해야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편견 수준이 높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함
 - 정치 영역(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직 참여 수준)과 경제 영역(경제활동, 소득, 고위직 참여 수준 등)에서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 의례적인 순위 소개에서 나아가 지수의 의미를 천착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관련 국제지수가 1995년에 도입된 이후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제지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매년 순위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여러 성평등지수의 관계에 대한 탐구, 하위 영역별 수준에 대한 탐구 등으로 관심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UNDP가 2023년에 새롭게 발표한 ‘여성임파워먼트지수’(Women’s Empowerment Index, WEI)나 ‘세계성평등지수’(Global Gender Parity Index, GGPI)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UNDP, 2023b)

참고문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7차 조사 조사표. 2022.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W7.jsp> (2023. 11.2. 접근)

주재선. 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KOSTAT 통계플러스』 16:44-58.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New York.

UNDP. 2023a. *2023 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 - Breaking Down Gender Biases: Shifting Social Norms towards Gender Equality*. New York.

UNDP. 2023b. *The Paths to Equal: Twin Indices on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New York.

World Economic Forum. 2023.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INSIGHT REPORT*.